



## 가정

#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 설교

여러분은 울고 싶은 날이 있나요? 친구와 싸웠을 때, 시험을 망쳤을 때, 또는 가족에게 서운할 때 마음이 무너지고 눈물이 날 때가 있죠. 아무리 위로받아도 속이 허전할 때가 있어요. 오늘 성경 속에도 그런 여인이 있었어요. 바로 나인 성에 살던 한 어머니였어요. 그 어머니는 외아들을 잃고 장례를 치르러 가는 길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순간이었겠죠. 그런데 그 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다가가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관습상 장례 행렬을 피했지만, 예수님은 고통의 현장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울지 말라.” 이걸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소망의 선언이에요. 예수님은 관을 만지시고 죽은 아들에게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청년이 일어나 말하기 시작했어요!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생명으로 바뀐 순간이에요.

이 이야기는 단지 옛날 기적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아파하시며, 상처 난 마음에 새 생명을 주십니다. 공부 때문에 지칠 때, 친구 관계 때문에 속상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가까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신 분이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와도, 예수님이 함께하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의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울지 말라.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 예배 순서

사도신경 ..... 다 같이

찬송 작고 약한 내 모습 ..... 다 같이

말씀봉독 누가복음 7:11~17절 ..... 다 같이

설교 예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 설교자

말씀나눔 ..... 다 같이

합심기도 ..... 다 같이

축복기도 .....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주기도문 ..... 다 같이

- ★ 찬송과 축복기도문과 말씀 나눔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
- ★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 찬양



▶ 찬양 영상 바로가기

## 공동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나인 성 과부의 눈물을 닦아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아시고, 오늘도 다가오셔서 새 힘과 소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하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속에도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말씀나눔

1. 예수님은 왜 나인 성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기사” 다가갔을까요?
2. 요즘 내 마음이 힘들거나 슬플 때, 예수님께 어떻게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요?